

한진화학 안성철 사장 의왕상의 회장

9월12일 초대회장으로 선출돼 ... 275개 의왕지역 제조기업 대변할 것

의왕상공회의소는 2005년 9월12일 회의실에서 제1차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초대회장에 지구표 페인트의 한진화학 안성철 대표이사를 선출했다.



안성철 회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고 말하고 “의왕상공회의소가 신설상의로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기업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 지원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의왕시에는 275개의 기업이 있으나 상공회의소 부재로 안양상공회의소의 관리를 받아왔다. 의왕상공회의소는 각종 자격검정시험 관리, 수출원산지 증명, 지자체에 대한 자문 및 건의, 상공업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안성철 회장은 한양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한진화학에 입사한 뒤 1979년부터 1987년까지 상무이사를 거쳐 1987년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 무역의날 국무총리 표창,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수상, 무역의날 500만달러 수출탑 수상, 의왕시 기업인협의회 회장, 2004년 1000만달러 수출탑을 수상했다. <이상훈 기자>

<화학저널 2004/09/16>